

“핵무기 인류 위협한다”

파키스탄등 핵실험...도미노 현상 우려
자국 이기주의 원인...핵무기 폐기 해결책

소위 '정당한 전쟁'을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핵무기가 인류를 다시금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경수로건설 지원으로 잠정 중단된 가운데 서남아시아에 핵무장 바람이 불고 있어 인류공멸을 재촉하는 핵무기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5월 11일과 13일 인도-파키스탄이 다섯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단행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쟁적 핵실험이 전세계의 핵개발 도미노현상을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파키스탄의 이븐사 이란을 비롯 해 이라크·리비아 등 회교국가, 그리고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로 번져나갈 것이라 전망된다.

특히 북한에 핵기술이 이전되는 상황은 가장 우려되는 점이다. 외산은 이미 북한과 우호관계인 파키스탄의 핵기술이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비록 경수로협정으로

북한에 일단 족쇄는 채웠다고 하지만 전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같은 현상은 곧바로 세계 핵질서의 붕괴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계 핵질서는 5대 강대국의 핵독점하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두 기둥으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 CTBT는 비준대상 44개국 중 불과 13 개국만이 비준을 마친 상태, 앞으로 비준대상국들이 인도·파키스탄의 예를 들어 비준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핵 전문가들은 “핵강대국들이 인도·파키스탄에 대한 제재조치와 함께 보유 핵무기를 줄이는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구상에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핵무기 개발경쟁은 끝날 수 없기에, 핵실험의 전면금지야 이미 존재하는 핵무기의 폐기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란 지적이다. 핵 강국들이 보유한 핵무기 숫자는 무려 3만1500여개, 인

류는 25억이나 멸망시킬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핵강국들의 기득권을 인정할 채 핵확산을 막으려는 불평 등 구조로는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것.

일부에서는 인도·파키스탄의 잘못된 종교이성주의를 비판하기도 한다. 굽주리는 국민을 의면하고 힌두·이슬람교간 성전(聖戰)에서의 승리만을 추구하는 광신적인 종교이성주의가 살아있는 한 전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교국가들이 미국·이스라엘 등 그리스도교국을 상대로 한 성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필사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그들이 파키스탄의 핵보유를 반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백악관성전협회 전제성희장은 “힌두·이슬람·그리스도교 등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교리를 갖고 있었지만, 순한 박해와 전도의 역사속에서 잘못된 성전개념을 거쳐서 ‘종교이성주의’라는 자국이기주의와 함께 영리한 평화의 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핵미사일 차를 한 평화운동단체 회원들이 5월28일 미국 주재 파키스탄대사관 앞에서 이 나라의 핵실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종교의 눈 “종교의 평화공존운동 절실”

“외도(外道)가 분쟁을 일으키려 한때도 같이 싸우지 말라. 분쟁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고뇌를 맛보게 할 것이며, 심지어 모든 천인(天人)들 에게까지도 이로운이 없을 뿐 아니라 고뇌를 주는 결과를 낳는다.”(식정인연경) 부처님은 비폭력과 평화를 가르쳤다. 부처님은 로하니강의 문제로 석가족과 팔리족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중재해서 전쟁을 방지했다. 또한 아자사투왕

이 밭지족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점에서 부처님과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의 평화사상을 계승한 인도가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아리니가 아닐 수 없다. 대구 경제정의 실천불교시민연합 강인성희장은 “인간에게 영원한 행복을 줘야 할 한 번의 기회를 잃을 때, 파키스탄이 종교전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를 파멸로 이끌 핵개발 경쟁에 나선 것은 매우 역설적인 사건”이라며 “종교인들의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최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의 김대통령에 대한 ‘공약 미성’ 발언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비판의 대상이 성역이 있을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린 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또 지난 자치단체장 선거전에서도 원색적인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기도 했다. 나쁜 말은 사람을 해치며, 그것은 곧 악업을 낳는다. 부처님께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하며, 또 구업(口業)의 과보는 어떻게 받는다고 말씀하셨는지 경전을 통해 알아보자. <편집자 주>

■ 악인들이 선을 행하지 않고 스스로 저를 망치며, 실 가르쳐서 갖가지 악을 함께 지으면서, 각력은 할만 주르하여 오직 증상하는 말, 거친 말, 욕하는 말, 거짓말, 서로 시샘하고 서로 다투어 착한 일을 미워하고 성자를 미워하며, 부모를 효도로 봉양하지 않고, 스승을 알보고 친구에게 신의가 없어서 성실하기 어려우며,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는 존귀하고 도가 있다 하여 위엄을 부리며 행하고, 세력을 휘둘러 선인을 꾸짖으면서 자기가 악한 짓 하는 줄 알지 못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세속의 오악 중 하나다.

■ 악인들이 선을 행하지 않고 스스로 저를 망치며, 실 가르쳐서 갖가지 악을 함께 지으면서, 각력은 할만 주르하여 오직 증상하는 말, 거친 말, 욕하는 말, 거짓말, 서로 시샘하고 서로 다투어 착한 일을 미워하고 성자를 미워하며, 부모를 효도로 봉양하지 않고, 스승을 알보고 친구에게 신의가 없어서 성실하기 어려우며,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는 존귀하고 도가 있다 하여 위엄을 부리며 행하고, 세력을 휘둘러 선인을 꾸짖으면서 자기가 악한 짓 하는 줄 알지 못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세속의 오악 중 하나다.

■ 악인들이 선을 행하지 않고 스스로 저를 망치며, 실 가르쳐서 갖가지 악을 함께 지으면서, 각력은 할만 주르하여 오직 증상하는 말, 거친 말, 욕하는 말, 거짓말, 서로 시샘하고 서로 다투어 착한 일을 미워하고 성자를 미워하며, 부모를 효도로 봉양하지 않고, 스승을 알보고 친구에게 신의가 없어서 성실하기 어려우며,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는 존귀하고 도가 있다 하여 위엄을 부리며 행하고, 세력을 휘둘러 선인을 꾸짖으면서 자기가 악한 짓 하는 줄 알지 못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세속의 오악 중 하나다.

■ 악인들이 선을 행하지 않고 스스로 저를 망치며, 실 가르쳐서 갖가지 악을 함께 지으면서, 각력은 할만 주르하여 오직 증상하는 말, 거친 말, 욕하는 말, 거짓말, 서로 시샘하고 서로 다투어 착한 일을 미워하고 성자를 미워하며, 부모를 효도로 봉양하지 않고, 스승을 알보고 친구에게 신의가 없어서 성실하기 어려우며,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는 존귀하고 도가 있다 하여 위엄을 부리며 행하고, 세력을 휘둘러 선인을 꾸짖으면서 자기가 악한 짓 하는 줄 알지 못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세속의 오악 중 하나다.

나쁜 말은 사람을 해치니...

IMF이후 빈부격차 심화

부유층 불로소득 늘고 저소득층 더 빈곤

“재물과 순금 보배와 갖가지 장신구와 많은 종과 하인들과 논밭과 대궐같은 집들, 그 모두를 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홀로갔거나...”(잡아함경)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가 시작되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 금융연구원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1년 이후 부유층 소득의 74~76% 선이던 중산층 소득이 올해는 68.0%, 내년에는 67.7%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부유층 소득의 31~32%를 유지해 온 저소득층 소득도 각각 28.5%, 28.4%로 하락해 소득격차가 80년대 초반 수준으로 벌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물가는 높은 수준이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게 됐다.

빈부격차가 심화되면 계층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사회통합에 적신호가 될 것이 확실해 정부의 분배구조 개선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세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폐기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재시행을 검토하고, 고소득층의 음성·불로소득에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추계과세제도의 도입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폭을 확대하고 최저임금제를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형평에 맞는 고통분담을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대폭력 ‘위협 수위’

선배·금우에 시달리다 자살 동내후배 생매장...강제 문신도

“모든 것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 이치를 자기 몸에 견주어 남을 죽이거나 죽게 하지 말라.”(범구경)

중학생이 후배를 폭행해 자살하게 하고 동내 선배가 말을 잘 안듣는다며 후배를 땅에 묻어 공포에 질리게 하는 등 10대 폭력이 흉포화하고 있다. 1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5월

27일 오후 순천시 송광면 임포(14·중2)군이 자신의 방에서 극약을 마시고 숨졌다. 경찰은 임군이 지난 5월7일 학교 선배인 기모(15·중3)군의 자취방에서 휴대용 카세트를 훔친뒤 탄로 나 카세트 값 변제를 요구받고 폭행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5월29일 오후 울산시 화북동 모중학교 4층 복도 창문에서 이

학교 3학년 이재선(14)군이 짝인 전모(14)군의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해 투신 자살했다.

한편 강원도 태백경찰서는 1일 같은 동내에 사는 후배를 땅에 묻고 문신까지 새긴 선모(17)군 등 10대 3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간첩체포하고 장모(17)군 등 3명을 수배했다.

진2동 S갈비집에서 이 지역 구위원 후보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계층제공 신고를 받고 나와 이 장면을 비디오표 촬영하려던 동각감 선거관리위원회 정중오(39) 관리계장 등 2명을 때려 정시의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PC통신 음란물 판매자 구속

수원지검은 2일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해 음란사진 등을 판매해 온 혐의(음란판매 등)로 인터넷 정보통신 노해(52)씨 등 정보제공업자 7명을 구속하고 이를 목인한 혐의로 한국통신 이광형(46·데이타베이스 운영지원국장)씨와 데이콤 양승익(39·컨텐츠 사업팀장)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등을 벌이고 있으나 1억여원에 이르는 골수이식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힘이 부쳐 각계의 온정을 기다리고 있다. 학생들은 지난해부터 투병중인 이민경(21·여·생물교육)씨의 딱한 사정을 전해 듣고 대동지인 지난 5월12~15일 교내에서 주점을 열어 4백50만원의 모금 뒤 서울로 이송되기 전에 이씨 부모에게 전달했다. (051)510-1941

단속중인 선관위 직원 구타

서울 노랑진 경찰서는 2일 향응제공 제보를 받고 출동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때린 혐의(선거법 위반등)로 우모(33)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김모(43)씨를 수배했다. 우씨 등은 1일 오후 노랑

새상품 “휴대용 자동 세차기”

언제 어느곳에서나 한통의 물만 있으면 세차 할 수 있는 ‘셀프 휴대용 자동세차기’가 나왔다.

자동차의 시가액에 꽃으면 바로 모터가 작동해 물을 뿜어주는 이 제품은 세차용 특수 브러시가 장착돼 있어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주)에스산업, 가격은 2만5천원, (02) 636-7138.

가짜짜! 통신강의 테이프 판매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사할업무에 바쁘신 관계로 강원에 들어가서 공부하기 어려운 스님과 재가불자들의 전문적인 불교 공부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의 테이프를 판매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테이프 목록 ◆◆

번호	강의 이름	법사	테이프갯수	비고
1	능엄경	법각성 스님	95(120분용)	강의록 93회
2	대승기신론	-	23(120분용)	강의록 17회
3	화엄사상특강 1(개론)	-	33(120분용)	교재1권
3	화엄사상특강 2	-	25(120분용)	교재1권
4	- 보현행원론	-	1(120분용)	-
	- 수심결	-	5(120분용)	-
	- 의주성론	-	8(120분용)	-
	- 풍토기	-	5(120분용)	-
	- 신심강	-	2(120분용)	-
5	원각경	법각성 스님	4(120분용)	탄허대중사 역해본
6	금강경	-	11(120분용)	-
7	육조단경	-	23(120분용)	-
8	영가경	-	17(120분용)	-
9	서경	-	16(120분용)	-
10	화엄경원론 권1	-	42(120분용)	강의록 29회
11	법화경	-	12(120분용)	원전 강의
12	화엄경원론 80권 및 화엄론 40권(각스님)	(현 계승 강의중임)	136(120분용)	탄허대중사 역해본
13	대승지장 중론지장(각스님)	법각성 스님	26(60.90분용)	지옥대사 역해본 간신대사 역해본
14	주역신해	-	345(60.90분용)	탄허대중사 역해본
15	경자남회경	-	59(120분용)	간신대사 역해본
16	불교기초교리	-	7(120분용)	한정섭·일도스님
17	원인론강의특강	-	2(120분용)	각성스님 역해본
18	대·중·소승(삼백강교수)	신정각 교수	12(120분용)	원전강의
19	불교사상강좌(근본불교)	최홍우 교수 (동국대 교수)	36(120분용)	논문집 1권
20	불교사상강좌(대승불교)	최홍우 교수	36(120분용)	논문집 1권
21	불교사상강좌	-	36(120분용)	-

■ 가격 : 테이프 1개당 2,000원(우송료 포함, 교재비 별도)
■ 입금처 : 213-026160-04-013(기업은행)탄허불교문화재단
■ 문의처 : 탄허불교문화재단 사무국 02)237-4438 FAX.02)237-4439

재단법인 탄허불교문화재단

생전예수재 범회시 설법자료, 범보시 책

생전예수재의 공덕

생전예수재의 의미, 유래, 공덕, 전생의 빛과 향, 예수재의 의식, 저승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예수재 행사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 에 미리 보냄으로써 예수재 행사 동참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으며 불자님께 좋은 범보시가 될 것입니다.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리고 범회안내, 범보시자 명단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신국판 72페이지

◎ 범보시 특가 : 1,500원

생전예수재 옴품 · 각종 번 · 장엄 번 · 전산(금·은전)

강로출판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 (02)723-4306~7, 팩스: (02)738-8682

효성석재공사

귀의 삼보하옵고, 석물상 조각을 비롯하여 석탑 석등 등 사찰 경내의 모든 설치물과 조각품 뿐 아니라 어려운 현장 작업도 가능하오니 언제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합장

◆ 주요불사실적 ◆

- 남한산성 성 불사 · 아미타석불 석탑 석등 공덕비 제작설치
- 안양 삼성사 · 석가탑 석등 사자상 제작설치
- 인천 송도선원 · 원형천지탑 및 십이지신상 조성
- 경기연천 육군5사단 205부대(옛 심원사) · 아미타불 조성설치
- 日本京都 영산법화사 · 석물제작 수습 (그외 다수)

주소: 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송우리 227번지
전화: 전시장 (0357)542-1527 야간 (0351)874-4685
공장 (0357)542-1528